

우리 사업장의 건강 날씨, 언제나 ‘맑음’입니다!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 정우정 보건관리자

글 임선숙 대전세종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10여 년간의 간호사 생활 그리고 이제는 보건관리자로서의 또 다른 10여 년.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의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 아래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여전히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의 하루가 오늘도 무탈한 이유다.



‘함께하는 힘’으로 시작한 보건관리자 생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막대한 책임감이 숨어 있는 자리다.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그 책임감을 결심한 지 20년이 흘렀다.

시작은 간호사 생활이었다. 1994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수술실, 건양대학교병원 수술실 등 촌각을 다투는 환경에서 여러 명의 생명을 살렸다. 보건관리자의 길을 걷은 것은 대학원 진학 이후였다. 보건학 수업을 배우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며 건강한 직장문화를 직접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 그렇게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2009년 보건관리자로서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관련 법률을 새로 숙지해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최근 3년의 이슈만 되짚어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코로나19 팬데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눈 돌릴 틈이 없었다. 그럼에도 간호사 시절보다 지금이 더 일하기 수월한 이유가 있다. 바로 든든한 뒷배이자 소중한 동료들 덕분이다.

“초반 1년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국 롯데칠성음료에서 근무하는 9명의 보건관리자 동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동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관련 업무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현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달의 한 마디

“안전보건은
협상이 아닌 의무”

대한소아과학회
김옥영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노동자와의 신뢰 형성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꼼꼼한 예방

롯데칠성음료는 우리나라 청량음료산업이 첫걸음을 떤 1950년 설립했다. 전국에 6개 공장이 있는데, 그중 정우정 보건관리자가 몸담은 대전공장은 1993년 준공돼 다양한 음료와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무거운 제품을 다루는 현장이기에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근골격계질환이다. 이에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2년 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했다.

우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정에는 전국 롯데칠성음료 생산공장 최초로 웨어러블 슈트를 도입했다.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해 부하를 덜고, 허리와 팔 등의 부상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또한 하루 4~5번 25kg가량의 제품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겨야 하는 공정에는 전용 압력용기를 설치했다. 꼼꼼한 요인 분석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노동자의 신체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 정우정 보건관리자 역시 이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포상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공장의 노동자들이 ‘심폐

소생술 일반인 심화과정’을 무려 7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수료하도록 했다. 이는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과 직결된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대전지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전문가다운 심폐소생술을 보여줄 계획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늘 정진하는 자세로

2024년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의 안전보건 슬로건은 ‘사고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그의 안전보건 철학 또한 뜻을 같이한다.

“언제든 무엇이든 이유 없이 안전보건은 협상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노동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리 현장이 계속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걸음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산업안전기사 취득에 이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와 소방관리를 함께하면서 관련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싶습니다.”

경험은 일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장점이지만,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느덧 그의 뒤에도 20년이 넘는 경험이 소복이 쌓였지만,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방심이 아닌, 초심에 집중한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초심. 그 초심을 지키는 수단에는 공부뿐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적극성도 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정우정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보건관리자 업무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동료 보건관리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노동자와의 신뢰 형성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해, 배려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즐겁게 출퇴근하고, 초년부터 정년까지 부상 없이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정우정 보건관리자.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시간이 흘러도 한결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그 덕분에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맑음이다. 🌿